



7개 상호저축은행 경영개선명령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융위는 2011년 9월 18일 금감원의 경영진단 결과와 경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상호저축은행 7개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함.

- 제일, 프라임, 대영, 에이스, 파랑새,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6개사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1% 미만에 해당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함.
- 제일2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1% 미만이고,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며, 회사도 영업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함.
 - 경영개선명령에는 6개월 영업정지,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(제일2 상호저축은행 제외),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5% 이상 달성 등이 포함됨.

■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들에 대한 경영정상화 조치와 동시에 정부 차원의 영업 재개 방안도 추진되는 한편,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도 마련됨.

-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나,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절차 또는 계약이전 등을 병행 추진함.
-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대주주 및 경영진의 추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임.
- 2,000만 원 한도 가지급금을 9월 22일부터 지급하여 긴급자금 수요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, 추가 긴급자금을 원할 경우 예금보험공사 지정 금융기관을 통한 가지급금 포함 총 4,500만 원 한도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.
- 원리금 합계 5,000만 원 초과 예금자들의 경우 파산배당 극대화,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,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사항 접수 후 분쟁조정 절차를 통하여 최대한 구제할 계획임.

(7개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, 금감원, 9/18)